

# 무주천마 홈쇼핑 첫 진출

###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아임쇼핑 통해 방송 예정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지리적 표시 무주천마'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리적표시 유통활성화'를 위한 TV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22일 오후 4시 40분부터 약 50분간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천마는 재배면적 107ha에, 생산량 480톤으로 대한민국 생산량의 60% 차지하는 천마 주산지로 명성을 떨쳐왔으나,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유통 채널이 없어 판매에 늘 어려움이 많았다.

무주농협은 매년 봄·가을에 약 200톤 가량 수매하여 직거래, 약초시장,

가공업체등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으로 판매량이 감소하자,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눈을 돌려 '판매량 확대와 무주천마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홈쇼핑을 추진해왔다.

홈쇼핑 진출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리적표시 유통활성화'를 위한 TV홈쇼핑 판로지원사업' 도움이 컸다.

위 지원사업은 판매수수료 인하와 방송용 홍보 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며, 방송효율 80%이상 달성시 정규편

성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주천마는 지난 2013년 인산을 제45호(무주천마)로 지리적표시를 획득하였다.

이번 방송에는 무주천마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장 판매가 보다 무려 50% 저렴한 가격에 1,000세트 한정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무주농협 박동열 조합장은 "이번 홈쇼핑 진출은 천마를 이용한 분말 제품으로 1차농산물과 다르게 여러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오로지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온 결과라며, 무주천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전북 J카우 송아지 생산사업 추진

### 고능력 암소 선발 구축 지역농가소득 향상 기대

진안군은 전북도에서 우량암소를 선발 관리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대한 2차 암소 모근채취를 10월말까지 추진한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정 3대 시책인 삼라농정 사업 중 하나로 친자확인 검사비,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의 고능력 암소를 선발 구축하고 선발된 암소에서 분만된 '전북 J카우 송아지' 생산으로 전북 한우만의 차별성과 개량 성과를 극대화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진안군은 올해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선발된 580두에 대한 모근채취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2차 암소 모근채취를 통해 추가로 308두를 검사 할 계획이다.

고능력 암소축군 개체선발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선발된 개체에 대해 부모 등 혈통관계를 검증하고 이 검증된 암소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량 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으로 전북 한우만의 우수한 송아지 공급과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 소양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완주군 소양면(면장 정재은)은 지난 20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소양면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2명을 포함해 총 23명(남15명, 여8명)이다. 주민자치위원장은 김인철 위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재은 면장은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 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앞



20일 완주군 소양면은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회합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

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강연으로 만나는 건축가 故 정기용

# 무주군, 영화감독 정재은씨 초청 강연

무주군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주최 무주군 / 주관 무주문화원)가 21일 1백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영화감독 정재은 씨는 "누가 안성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를 주제로 무주를 사랑한 건축가 故 정기용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故 정기용 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무주공공건축 프로젝트(읍면 주민자치센터, 등나무운동장, 보건의료원, 반디랜드 등 공공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를 맡아 진행했던 건축가로,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한 건축,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며 한국 건축사에 오래 기억될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날 강연을 통해 故 정기용 건축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정재은 감독은 2012년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가(정기용)"를 제작한 바 있다.

한편, 무주군의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겨냥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등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완료

진안군은 21일 1급 발암물질이면서 1970년대 전후 우리나라 건축물에 널리 사용됐던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석면가루가 날릴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석면폐증, 석면폐암 등의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진안군은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 왔다.

군은 지난 2013년 105동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총 522동, 14억원을 투자하여 슬레이트를 해체·처리 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체 시책으로 추진

해온 마을 내 버려진 1만7,590㎡의 주택용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사전 살폐조사를 거쳐 수거 처리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

이항로 군수는 "2017년에도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 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수요조사를 사전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진안 드림스타트, 소비자 교육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21일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과 함께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똑똑한 소비, 현명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인형극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올바른 소비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경제교육에 대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인형극을 보고나서 이론교육을 들으니 훨씬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작은 돈이라도 가치있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킬트공예 배우기에 한창이다.

# 장수군, 킬트공예 배우기 '한창'

### 농촌작은문화교실 지원사업 선정 품물동동·별헤는마을 주민 대상

장수군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킬트공예 배우기에 한창이다.

품물동동마을과 별헤는마을은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촌작은문화교실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킬트공예는 손바느질을 통해 생활소품을 만들어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공예프로그램

로 특히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킬트공예 프로그램은 1일 3시간씩 총 25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영이모양의 우편물꽂이를 시작으로 다섯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여가활동과 일거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애로 인한 불편 줄여드려요'

### 무주군, 10월 말까지 주택개조 지원사업 완료키로

무주군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10월 말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장애를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총 4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주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여건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등록 장애인들 중 1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 가구 중 3곳에 대한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와 현관 출입경사로 설치 등을 완료했다.

한편,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현수 건축 담당은 "나머지 8동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며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진행하

고 있는 만큼 해당 가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수 군수는 지난 20일 주택개조가 완료된 가정을 찾아 설치 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해당 가구의 주민들을 만나 설치된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힘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추진이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불편을 가늠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나 혼자만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20일 실·과·소 및 읍·면 건설 관계공무원(토목직)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업무역량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 진안군, 건설공사 관계공무원 업무역량 교육

진안군은 지난 20일 실·과·소 및 읍·면 건설 관계공무원(토목직)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업무역량 교육 및 관내 건설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서기태 법무감사담당 주관으로 이루어진 자체교육은 도로, 도시계획, 농촌개발, 하천 등 담당별 선배공무원으로부터 기술업무 교육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Know-How) 공유가 이루어졌고, 최방규 비서실장은 토목업무 기초부터 공사감독 및 민원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계기도 되

었지만 최근 많이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간접적인 업무역량 향상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건설사 대표들과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관내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과 감독부서인 각 담당자들 간에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교육을 더욱 확대해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및 건설업무의 질을 높이고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로그

### 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장 운영

장수군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오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

군은 수확철을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단은 모범사업 3개반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보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멧돼지 등이 인가주변에 출현할 경우 구제활동, 부상조수 발견 시 현장출동 및 치료기관 이송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연장운영하게 됐다"며 "농작물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위생과(063-350-2515)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심뇌혈관질환 교육 호응

완주군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21일 소양면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통합건강증진사업단과 연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발생, 사망, 장애감소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치료를 등 관리수준 향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생활습관 교육, 질환별 합병증 관리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관리능력 향상과 금연, 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완주 삼례읍, 장애인

### 주거환경 개선 추진

완주군 삼례읍 맞춤형복지팀은 2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통합사례관리대상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앞서서만 생활해 바깥출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53세, 뇌병변 2급)으로 현관문과 목욕탕의 방충문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민관공동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방충문 교체는 최왕립(반주창호유리산업 대표), 유희면(완주토목건설 대표) 협의체 위원들의 후원으로 이뤄져 지역사회 좋은 귀감이 됐다.

이승창 삼례읍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진안읍체육회 선수단 발대식

진안군 진안읍체육회(회장 김중구)는 지난 20일 선수 및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진안읍 선수단 발대식'을 읍사무소 강당에서 열었다.

진안읍사무소체육회는 이날 발대식을 통하여 각 종목별 우승을 기원하고 선수들과의 협력 및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김중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가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되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진안읍의 협력을 다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땀 흘리고 전진하자"고 말했다.

제54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10월 12일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개최되어 진안군 각 읍면 선수단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진안=우태만 기자